



“켜켜이 쌓여”... 가문서 피어난 추사의 예술

13일부터 제주추사관서 김정희 탄신 240주년 특별전
영조 어필·김한신 글 등 종가서 전해진 보물 26점 공개

“성념을 경계하는 뜻은 매우 좋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은 늘 몸과 입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소에 지계(持戒·계율을 지키는 것)를 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또한 여기에 힘을 기울였다. 바다에 들어온 뒤로 (제주도로 유배 온 이래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찌 한 두가지겠는가? 오히려 얼굴빛과 말로 드러내지 않고 순리에 따라 지나가는 모든 것을 타파하고자 한다. 이전에도 이와 같았고, 이후에도 이와 같을 것인데, 오늘의 나를 걱정하는 것 같다.”

추사 김정희(1786~1856)의 편지 ‘김정희 제주간찰’에 담긴 일부 내용이다. 유배생활을 했던 제주에서 쓴 이 편지는 충남 예산 김정희 종가에서 전해진 보물급 유물 중 하나다. 가문 안에서 오랜 시간 지켜지고 전해진 유물들은 추사의 예술이 갑자기 완성된 것이 아닌 삶과 학문, 관계와 기억이 켜켜이 쌓여 피어난 것임을 보여준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추사 김정희 탄신 24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 ‘추사, 가문에서 피어난

예술’을 이달 13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추사관에서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선 김정희 종가의 보물급 유물 26점이 공개된다. 이는 제주 추사관 수장고에 보관했던 유물들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선보인다.

전시에선 김정희가 쓴 편지와 함께 행서체로 쓰여진 사언절구 시 ‘고준(옛날에 뛰어난 위인)’, ‘정반도화읍(뜨락에서 울고 있는 복사꽃)’, ‘청우월백초삼야(맑기는 삼경의 흰 달보다 맑고)’ 등을 볼 수 있다. 더불어 딸인 화순옹주를 애도하며 쓴 ‘유제우화순옹주지령’, ‘희우’ 등 조선 21대왕 영조의 어필을 비롯해 영조의 부마인 김한신(1720~1758)의 자취가 담긴 미발간 시집 ‘매헌난고’ 등을 내놓는다. 추사의 증조부모는 김한신과 영조의 둘째딸 화순옹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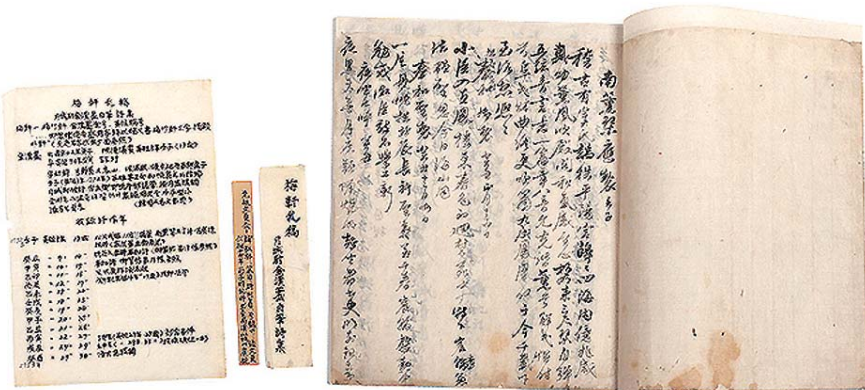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추사 개인의 천재성에만 주목했던 기존의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가문의 학문적 토양과 예술적 전승 과정이 추사라는 거장의 탄생에 어떤 밑거름이 됐는지 그 뿌리를 입체적으로 추



제주에서 쓴 김정희 편지 ‘김정희 제주간찰’



영조가 화순옹주를 애도한 ‘유제우화순옹주지령’.



김한신의 미발간 시집 ‘매헌난고’.

부국문화재단 기증·제주도 제공

적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전시의 핵심인 김정희 종가 유물은 추사 예술의 발원지와 정신적 지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평가된다.

김형은 도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특별전은 추사 예술의 근원을

가문의 학문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뜻깊은 기회”라며 “추사 문화유산이 지닌 공공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겠다”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아코디언으로 전하는 4·3... ‘붉은 풍금소리’

오늘부터 8월까지 공연
“예술가들 뜻 모아 진행”



제주 아코디언 연주자 우상임(사진)씨가 아코디언 에세이 ‘붉은 풍금소리’를 펼친다.

‘붉은 풍금소리’는 제주4·3의 아픔을 아코디언 선율로 치유하는 음악극이다. 4·3 당시 아홉살이었던 아이가 여든의 노인이 되기까지 가슴에 묻어둔 침묵의 세월을 이야기한다. 우상임 씨가 4·3으로 어머니가 겪어온 고난의 시간을 아코디언 연주로 표현한다.

이번 공연은 연주자를 비롯 극단 현장, 애월뮤직팩토리 등 지역 예술가들이 뜻을 모아 추진하는 자생적 정기 공연이다. 연주자는 “예술가들이 힘을 합쳐 읍면지역에서 자

생적인 상설무대를 만드는 것이 쉬운 도전은 아니지만 4·3의 기억을 잊지 않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이번 정기공연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공연은 이달 12일부터 시작돼 오는 8월 13일까지 이어간다. 이 기간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6시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애월뮤직팩토리에서 공연된다. 공연은 유료로 진행된다. 박소정기자

해녀박물관 ‘해녀의 작업복, 고무옷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해녀문화 체험 교육 ‘해녀의 작업복, 고무옷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녀들의 필수 작업복인 고무옷을 소개하고 은퇴 해녀에게 직접 듣는 해녀 도구 이야기, 고무옷의 촉감·냄새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고무옷 원단 자투

리를 활용해 마우스패드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체험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은 이달 13일과 20일 오후 2~4시 해녀박물관 1층에서 이뤄진다. 박물관 인근 마을의 은퇴 해녀가 보조강사로 참여해 생생한 물질경험과 해녀문화를 직접 전한다.

참가 신청은 해녀박물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박소정기자

힘차게 달리는 말... 아홉 명의 다른 시선

이룸갤러리서 신년 기획전
‘백마천색 : 천 개의 빛깔...’

아홉 명의 작가가 각자의 시선으로 말(馬)의 상징성을 바라봤다. 힘차게 달리는 말의 모습과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생동감을 통해 새해의 시작을 향한 에너지와 움직임, 희망을 작품 속에 녹여냈다.

이룸갤러리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룸갤러리 한라일보점(제주시 서사로 154)에서 기획전 ‘백마천색(百馬千色): 천 개의 빛

깔로 달리는 꿈’을 연다.

이번 전시는 올해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을 주제로 한 그룹전이다. 김영훈, 김점선, 박상호, 박주우, 심인희, 오지원, 유종욱, 정미, 허진혁 등 작가 9명이 저마다의 조형언어로 ‘말’이라는 상징을 재해석한 작품 35점을 선보인다.

이들은 정형화된 말의 형태를 넘어 작가 특유의 다채로운 색채와 구도, 질감을 통해 말의 매력을 담아낸다. 갤러리 측은 “다양한 모습의 말들은 저마다 다른 우리들의 ‘꿈’을 상징한다”며 “‘마도성공



박상호 ‘팔마도’

(馬到成功)’의 메시지를 담아 전시된 말들과 함께 호흡하며 관람객이 각자의 새해 소망을 투영하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장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시 오프닝은 이달 1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관람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설날(17일)과 월요일(23일)은 휴관한다. 박소정기자

애월도서관 3월부터 휴관

안덕산방도서관 리모델링

제주시 애월도서관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문을 닫는다.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서다.

이 기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애월체육관 2층 다목적실에는 임시 자료실이 마련된다. 임시 자료실에선 3월 30일부터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가 운영된다. 다른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반납할 수 있는 ‘타관 도서 반납 서비스’도 제공된다.

임시 자료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애월도서관은 새 단장을 거쳐 2027년 1월 재개관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서귀포시는 준공한 지 25년 된 안덕산방도서관 전면 리모델링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휴관에 들어간다.

시는 국비 15억원 등 총사업비 26억원을 들여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과 자료실 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산방도서관은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다.

시는 전면 휴관 기간 도서관 외부 주차장에 임시 자료실을 설치, 다음달 23일부터 신간 도서와 희망 도서, 책두레 도서의 대출·반납 등 일부 도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위영석기자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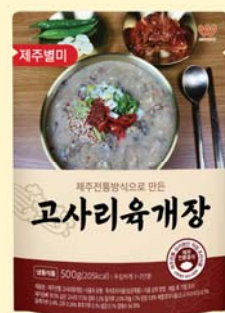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계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복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